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IPA 분석

윤혜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성요소별 스케일업 정책 방향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인 창업자들의 인식은 창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업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진단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기술 인재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은 '법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사업 분야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의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성장 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연구로 정책 실무와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핵심주제어: 스타트업,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금융자본, 시장, 인재, 문화인식, 정책, 지원, IPA 분석

1. 서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성장·고위험의 신생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하며, 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창업생태계라고 한다(문미성, 2019). 스타트업은 축적의 시간을 거쳐 스케일업으로 진화하며 본격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스케일업 기업의 정의는 고용이 10명 이상이며, 고용이나 매출이 3년간 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산업분류, 업력 및 규모로 국한하지 않고 높은 성장성에 중점을 둔다(강준영, 2017). 스케일업 기업은 고용과 매출, 수출 등 경제성장의 근원으로 국가 경제 차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 스타트업은 혁신과 효율을 기반으로 스케일업의 진화 단계의 과정을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며 기업 가치를 향상해나간다. 즉, 스케일업 단계가 유니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조운정, 2020).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기존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월한 스케

일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강준영, 2017). 해외 벤처 선도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은 창업생태계 주체인 금융기관, 산업계(스타트업, 대기업), 정부 간의 전략적 협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조운정, 2020).

2016년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 Korea에서 Daniel Isenberg는 국내 창업생태계가 스케일업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홍대웅·전병훈, 2019). 창업의 대중화를 실현한 국내 창업생태계는 혁신과 기술 기반의 기회형 창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고(김영환, 2021), 질적인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애선 외, 2019; 백서인 외, 2020; 조병문·신현한, 2020).

글로벌 연구 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2022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에서 서울은 100개국 280개 도시 중에 2020년은 20위, 2021년은 16위, 2022년은 10위를 차지하여(Startup Genome, 2022), 세계 10대 생태계에 처음 진입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생태계에 집중되어

* 주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hamhelen@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투고일: 2022-11-10 · 1차 수정일: 2022-12-09 · 2차 수정일: 2022-12-18 · 게재확정일: 2022-12-26

있어 국가수준의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하였다. 목표는 2027년까지 해외 진출 기업 5만 개, 해외매출비중 25% 이상인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이다. 세부 전략은 첫째, 글로벌 스케일업 촉진으로 대기업과 협업, 선배기업 노하우 전수 기회 마련이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개최와 해외 거점 확대이다. 셋째, 해외 인재 및 자본 유입이다. 넷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K-스타트업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2).

김만수·강재원(2021)은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창업 관련 법의 제정이나 창업정책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정이 있을 때 정책목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도전) 과정의 문제점들을 보완 및 해결하는 방향으로 창업정책이 제시되어왔다. 분석 결과로 정책의 개선방향을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 지역 내 산·관·학의 협력과 자원의 활발한 교류는 중요하다(이민재·정진섭, 2021).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념에 대한 연구로 이론과 실증 연구의 격차가 있고, 창업생태계 출현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생태계의 기능, 요소 간의 잠재적 인과 관계 등 실증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Wadichar et al., 2022). 스케일업 기업의 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여러 환경적 요소가 필수적이며, 스케일업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선우 외, 2018).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에 대한 국내외 학술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홍대웅·전병훈, 2019), 지역과 사회, 국가 수준의 창업생태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남정민 외,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연구가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개념, 구성요소, 선행연구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과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 즉 국가 수준의 창업생태계 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현재 수준)를 실제 창업생태계의 주체인 ‘창업자’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창업자와 창업에 대한 인식은 국가수준의 창업생태계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남정민 외, 2021),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은 창업만족도, 기회형 창업의 수준, 재창업의 의지 등 창업 태도와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남정민·이환수, 2019). 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의 시사점과 요소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

내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스케일업

스타트업의 진화 단계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스케일러, 유니콘, 데카콘으로 확대되며 진화한다(김애선 외, 2019). Ries(2011)는 스타트업을 극도의 불확실성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강준영·김해진, 2019). 고성장 기업(High-Growth Enterprises)을 OECD가 처음으로 소개하고(Petersen & Ahmad, 2007), Coutu(2014)는 같은 의미인 스케일업을 단어로 사용하며 대중화되었다. 스케일업은 고용이 10명 이상이고, 고용이나 매출이 3년 연속 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국가 및 기관별로 조건과 명칭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성장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였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업을 설립 후 매출과 고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본다.

<표 1> 국가 및 기관별 스케일업 개념 및 정의

구분	개념 및 정의
EU	설립 후 투자금을 100만 달러 이상 유치한 기업
중국	가젤기업으로 지칭하고 연 매출이 1,000만 위안 이상이고 매년 20%이상 성장잠재력 보유 기업
OECD	고용이 10명 이상이고, 고용이나 매출이 3년 연속 평균 20%이상인 기업
NESTA	10인 이상의 기업이며, 최근 3년의 고용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을 기록한 기업
배용호 외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용 50명 이상의 국내 상장기업 (고용증가를 12%, 평균 매출액 2,646억원)
강희일 외(20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고용 10명 이상의 기업(CT분야) (고용증가를 35.8%, 평균 매출액 8.1억달러)
중소벤처기업부(2017)	고용 10명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 (고용증가를 48%, 평균 매출액 144억원)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강준영·김해진(2019) 재정리

영국의 신규 일자리 54%는 6%의 스케일업 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일자리 33%는 5%의 스케일업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김선우 외, 2021b). 이처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스케일업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다(김충현·이재강, 2020). Coutu(2014)는 비스케일업 기업과 비교하여 스케일업 기업은 생산성이 2배 이상 높고, 신규 고용은 3배 이상 창출한다고 발표하였다(강희일·김현중, 2019). 김현창(2019)은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은 R&D 인력 비중이 높고, 4개의 혁신 유형 중에 마케팅을 제외한 제품, 공정, 조직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홍재범(2015)은 고성장기업이 해당 지역 관련 기업

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완성도와 수명주기 상의 위치가 유리할수록 고용과 매출 모두 고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김영범·양동우(2021)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케일업의 구성요소를 고용 확대, 경영 성과, 혁신역량으로 설정하였다. 김정호·백서인(2021)은 데카콘 기업인 스트라이프와 상장된 엑시콘 기업인 스캐어의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단계까지의 성장 요인은 기술과 서비스가 높은 플랫폼, 혁신과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관련 산업 유경험 창업자,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로 보았다. 유니콘 이후 단계에서 성장 요인은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 기업과의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B2B에서 B2C로 고객 확대, 기존 및 최신의 기술 융합으로 서비스 확대, 대규모 투자 유치로 보았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벤처금융 생태계, 규제 완화, 신산업의 빠른 성장률이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Spigel(2022)은 영국 핀테크 고성장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진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경영 지식과 관리 노하우가 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김애선 외(2019)는 유니콘이 스케일업의 상징이며, 유니콘 중심으로 스케일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스타트업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 스케일업 관련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영범·양동우(2021)도 국내 정책과 지원이 선진국과 달리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2. 창업생태계 개념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는 Cohen(200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김선우 외, 2021a). Van de Ven(1993)은 기업가적 시스템으로 표현하였고, 생태계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Cohen(2006)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Feld(2012)는 창업생태계 내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표 2>과 같이 창업생태계의 개념은 지역과 산업 분야 내 창업활동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어 왔으며(Cantner et al., 2021),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주고, 창업자의 태도와 성과에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남정민 외, 2021).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벤처·창업 연구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1998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에서 벤처생태계 개념을 적용하였다(문미성, 2019). 창업생태계는 지난 10년 동안 정책 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사이에서 관심을 받아 왔고, 연구는 대체로 비이론적, 정적인 것이며 주로 선진국에 초점을 두었다(Cao & Shi, 2020).

<표 2> 창업생태계 정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정의
Cohen(2006)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는 새로운 지속가능 벤처기업을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Isenberg(2010)	6가지 범주로 구성됨: 1)호의적인 문화, 2)정책 및 리더십 촉진, 3)구체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 4)적용 가능한 인적자원, 5) 제품 친화적인 시장, 6)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반 시설 및 제도적 지원
Isenberg(2011)	6가지 범주의 12개 요소로 구성되며, 자생적인 기업가정신을 위해 적절한 규제, 시장, 자본, 인적자원, 문화, 지원이 필요함
Mason & Brown(2014)	상호 연결된 기업가적 행위자, 조직, 기관 및 프로세스의 집합
Stam(2015)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위해 함께 일하는 상호 연결된 참가자와 환경의 집합으로 창업자, 리더십, 자본, 인적자원, 정보 및 지원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창업생태계의 중심
Audretsch & Beitski(2017)	기업가적 기능성의 확인과 상업화에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요소와 제도적, 조직적 참여자들
Spigel(2017)	지역화된 문화적 관점, 소셜 네트워크, 투자 자본, 대학, 혁신적인 벤처를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집합
Theodoraki & Messegem (2017)	특정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 워크로 수평적 및 수직적 네트워크, 공공 및 민간 자금 지원 기관, 자원 그룹, 연구기관 및 기업 컨소시엄을 포함
Meshram & Rawani(2019)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성장 및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
Wadichar et al. (2022)	특정 지역에서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개별 행위자와 요소의 집합

출처 : Wadichar et al.(2022) 재정리

Cavallo et al.(2019)은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창업생태계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들과 개념을 정리하고 향후 광범위한 여러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연구 질문을 개발하였다. Cao & Shi(2020)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2010년 이후에 연구가 많아졌고 대부분이 경험적인 연구임을 보여준다.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일 사례 연구와 미국과 유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고 보았다. Kansheba & Wald(2020)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창업생태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더 다양한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Wadichar et al.(2022)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였고,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지역과 국가마다 다르므로, 다양한 국가 환경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3.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리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Van de Ven(1993)은 새로운 기술을 합법화, 규제, 표준화하기 위한 제도와 기초 과학적 지식, 자금조달, 유능한 인력 등의 공공자원, 이윤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유통 활동을 창업생태계 요소로 보았다. Cohen(2006)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대학, 정부, 전문 및 지원 서비스, 자본

서비스, 인적자원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Isenberg(2011)는 창업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생적인 기업가정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Finance), 시장(Market), 인적자원(Human Capital), 문화(Culture), 정책(Policy), 지원(Support)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리적으로 집중된 생태계를 만들고 강화, 육성, 진화시키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와 사회를 성장시킨다. Feld(2012)는 창업가, 멘토, 인재, 금융, 정부 등의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고 가치를 창출해나가며 발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Stam(2015)은 창업생태계 요소인 시스템(네트워크, 리더십, 자본, 인재, 지식, 지원기관) 요소와 프레임워크(수요, 물리적 인프라, 문화, 공공기관) 요소가 창업활동과 가치창출로 이어지며 선순환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tangler & Bell-Masterson(2015)은 창업생태계 활력의 지표를 밀도(신규 기업, 신규 기업 고용률, 기술), 유동성(인구, 노동시장 재분배, 고성장 기업 수), 연결성(프로그램, 스피드 오프 비율, 네트워크), 다양성(경제 다각화, 이민, 소득)으로 보았다. Spigel(2017)은 창업생태계를 문화적, 사회적, 물리적 요소가 지역적으로 상호 연결된 연합으로 보았다. Stam & Van de Ven(2019)은 Stam(2015)의 모델에서 제도적(공식기관, 문화, 네트워크), 자원(물리적 인프라, 수요, 중개자, 인재, 지식, 리더십, 금융)의 10가지 요소로 재구성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창업생태계의 결과로 보았다.

<표 3> 창업생태계 주요 이론 및 구성요소

연구자(년도)	구성요소
Van de Ven(1993)	규제 및 제도, 공공자원, 창업기업 활동
Cohen(2006)	금융자본, 인적자원,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크, 정부, 전문 지원기관, 대학
Isenberg(2011)	금융자본, 시장, 인적자원, 문화, 정책, 문화, 지원
Feld(2012)	창업가, 멘토, 네트워크, 인재, 서비스, 금융, 정부
Stam(2015)	자본, 인재, 지식, 문화, 네트워크, 리더십, 물리적 인프라, 공공기관, 지원기관, 시장수요
Stangler & Bell-Masterson(2015)	생태계 밀도, 연결성, 유동성, 다양성
Spigel(2017)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속성
Stam & Van de Ven (2019)	물리적 인프라, 시장수요, 지원기관, 인재, 지식, 리더십, 금융, 공공기관, 문화, 네트워크,

출처 : 김선민(2019), 서리민 외(2020) 재정리

글로벌 연구 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에서는 창업생태계를 창업성과(Performance), 자금조달(Funding), 시장범위(Market Reach), 인재와 경험(Talent & Experience), 연결성(Connectedness), 지식(Knowledge) 6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여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첫째, 창업성과(Performance)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척도로 생태계 가치(Ecosystem Value), 투자회수(Exits),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수(Startup Success) 3가지를 말하고, 둘째, 자금조달(Funding)은 초기 단계의 자금량 및 증가(Access), 투자의 수와 활동 수준(Quality & Activity) 2가지를 말한다. 셋째, 시장 범위(Market Reach)의

하위요인은 스케일업 또는 유니콘의 글로벌 선도기업(Global Leading Companies), IP 기술사업화(IP Commercialization), 지역 시장 범위(Local Reach) 3가지를 말하고, 넷째, 인재와 경험(Talent & Experience)은 기술 인재(Tech Talent), 생명과학인재(Life Sciences Talent), 경험(Experience) 3가지를 말한다. 다섯째, 연결성(Connectedness)의 하위요인은 지역 연결성(Local Connectedness), 인프라(Infrastructure) 2가지를 말하고, 여섯째, 지식(Knowledge)은 연구(Research)와 특허(Patents) 2가지로 보았다(Startup Genome, 2022).

2.4.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각 구성요소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강요하지 않고 행위자별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선우 외, 2018).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인 창업생태계 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김충현·이재강, 2020). 김선우 외(2018)는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주도의 자립역량, 지역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의 참여, 부처 간의 연계된 정책과 기능 강화, 공공구매 등을 제시하였다. 손가녕(2019)은 해외 국가의 스케일업 생태계 사례를 통해 성장단계 평가 시스템 존재, 스타트업-스케일업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 다양한 금융자본, 선별된 기업 집중 지원의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Isenberg(2017)을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senberg(2017)의 구성요소는(상위요소 6가지, 하위요소 12가지) 첫째, 금융자본(Finance), 둘째는 시장(Market)의 하위요소인 초기 고객(Early Customers)과 네트워크(Networks)이다. 셋째,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하위요소인 노동력(Labor)과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을 말하며, 넷째, 문화(Culture)의 하위요소는 성공 스토리(Success Stories)와 사회적 규범(Societal Norms)을 말한다. 다섯째, 정책(Policy)은 하위요소가 정부(Government), 리더십(Leadership)이며, 여섯째, 지원(Support)의 하위요소는 인프라(Infrastructure), 지원 전문가(Support Professions), 민간 기관(Non-Government Institutions)으로 보았다.

2.5.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선행연구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표 4>와 같다.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국가별 스케일업 정책의 사례, 비교 등 탐색적인 정책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범·양동우, 2021). 이처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몇몇 연구는 스케일업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지만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현재 수준)를 실제 창업자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현시점에 필요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김선우 외 (2018)	해외 중소도시 생태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스케일업 생태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사례연구
김애선 외 (2019)	국내외 스케일업 정책의 동향과 국내 유니콘 사례를 통한 전략과 확산을 위한 방안	사례연구
강희일 김현중 (2019)	ICT 스케일업 기업과 비스케일업 기업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ICT 스케일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양적연구
손기영(2019)	해외 주요 국가들의 스케일업 정책 및 사업을 통한 벤치마킹 포인트를 시사점으로 도출	사례연구
조달호 유인혜 (2019)	창업 초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정책 방향을 구성요소에 따라 도출	사례연구
홍대웅 전병훈 (2019)	주요 국가별 스케일업 지원 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 제시	사례연구
김선우 진우석 (2020)	해외 주요국의 스케일업 정책의 사례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사례연구
김충현 이재강 (2020)	트리플 헬릭스 모형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한 요인 도출	양적연구
김선우 외 (2021b)	영국의 스케일업 정책 및 연구소의 역할 사례를 통해 국내 스케일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례연구
김영범 양동우 (2021)	엑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스케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양적연구
김정호 백서인 (2021)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 경로를 분석하여 성장 단계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	사례연구
황정섭 외 (2021)	ERIS 모델을 중심으로 ICT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 분석	사례연구

출처 : 연구자 정리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과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ICT 산업에서도 확실적인 창업 지원보다 유니콘 등의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강희일·김현중, 2019). 국내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도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대경·박재은, 2019).

III. 연구방법

3.1. 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각 속성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같이 분석하는 평가 기법으로 연구결과를 쉽게 알 수 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Martilla & James, 1977), 각 속성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4개의 분면에 표시하는(Hammit et al., 1996) 방법이다. 제1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지속적 유지, 제2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로 과잉노력 지양, 제3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저우선순위, 제4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집중개선 영역으로 구분한다. 결과의 순위를 통해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변충규·성창수, 2014). X축은 중요도를, Y축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각 사분면은 중요도-만족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IPA 분석은 절대적 중요도를 활용한 방법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윤설민, 2018),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변충규·성창수, 2014). 선행연구들은 IPA 분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변충규·성창수, 2014; 김수진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분석하여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3.2. 연구대상

<표 5> 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31	82.9
	여성	27	17.1
연령	20대	12	7.6
	30대	43	27.2
	40대	69	43.7
	50대	29	18.4
	60대	5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9
	대학교 재학생	5	3.2
	전문학사 졸업	11	7.0
	학사 졸업	58	36.7
	석사 과정 및 석사	49	31.0
	박사 과정 및 박사	32	20.3
사업장 소재지	서울	54	34.2
	경기	44	27.8
	인천	7	4.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8	11.4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19	12.0
	광주, 전남, 전북	12	7.6
	강원	1	6.0
	제주	3	1.9
업종	ICT서비스(통신·방송·정보·SW 및 IT)	71	44.9
	ICT제조(부품·컴퓨터 외·정보통신 기기)	17	10.8
	일반제조	19	12.0
	문화콘텐츠(출판·음악·게임·방송·광고 등)	11	7.0
	바이오(의약·화학·환경)	19	12.0
	지식서비스업(교육서비스·보건업·사회복지)	7	4.4
	쇼핑몰·도소매 등 유통 판매	6	3.8
	건설·기계·자동차	4	2.5
	기타	4	2.5
	창업기업 업력	1년 미만	8
3년 미만		66	41.8
5년 미만		59	37.3
5년 이상-7년 이내		25	15.8
직원수	0-5명	73	46.2
	6-10명	31	19.6
	11-20명	36	22.8
	21-40명	15	9.5
	41-60명	1	0.6
	61-70명	2	1.3
창업경험	1회 이상	118	74.7
	2회 이상	30	19.0
	3회 이상	10	6.3
입주현황	공공기관	28	17.7
	민간 엑셀러레이터	3	1.9
	창업보육센터	78	49.4
	입주하지 않음	49	31.0

본 연구는 2022년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30일간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1명(82.9%), 여성 27명(17.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69명(43.67%), 30대 43명(27.2%), 50대 29명(18.4%), 20대 12명(7.6%), 60대 5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54명(34.2%), 업종은 ICT서비스 71명(44.9%), 창업기업 업력은 3년 미만 66명(41.8%), 직원 수는 0~5명 73명(46.2%), 창업 경험 1회 이상 118명(74.7%), 입주현황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78명(49.4%)으로 가장 많았다.

3.3. 측정도구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수준에서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해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한 Isenberg(2017), 조달호·유인혜(2019), 홍대웅·전병훈(2019), 김선우·진우석(2020)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6> 측정 도구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출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금융	스케일업 전용 펀드	2	Isenberg(2017) 조달호·유인혜(2019) 홍대웅·전병훈(2019) 김선우·진우석(2020)
		투자 대형화	2	
		투자연계 행사	2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2	
	시장	테스트베드 지원	2	
		공공조달 시스템	2	
		대기업과 네트워킹	2	
		글로벌 진출 위한 기관	2	
	인재	글로벌 인재 유치	2	
		법률 회계 기술 전문가 그룹	2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	2	
		기술인재 육성	2	
	문화 인식	스케일업 우수 사례	2	
		기업가정신 제고	2	
		제도전 생태계	2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2	
	정책	법정부 통합 추진 계획	2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	2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2	
		규제 개선	2	
지원	산업 클러스터	2		
	공공 지원기관 강화	2		
	민간 AC 역량 강화	2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2		
창업지원 수혜경험	공간, 자금, 프로그램 등	8	-	
인구기초정보	성별, 연령, 소재지 등	11	-	

설문은 총 59문항으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요소별 중요도 24문항, 만족도 24문항, 인구통계학적 기초정보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금융’, ‘시장’, ‘인재’, ‘문화인식’, ‘정책’, ‘지원’ 6가지 상위요소이며, 금융(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투자 연계 행사,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시장(테스트베드 지원, 공공조달 시스템, 대기업과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인재(글로벌 인재 유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그룹,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 기술인재 육성), 문화인식(스케일업 우수 사례, 기업가정신 제고, 제도전 생태계,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정책(법정부 통합 추진 계획,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규제 개선), 지원(산업 클러스터, 공공 지원기관 강화, 민간 액셀러레이터(AC) 역량 강화,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금융의 하위요소인 스케일업 전용 펀드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금융의 하위요소인 스케일업 전용 펀드의 만족도(현재 수준)는 어느 정도인가요?”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하위요소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다.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낮음은 1점, 매우 높음은 5점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표본 전체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해 SPSS 26으로 대응표본 T검증,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요소 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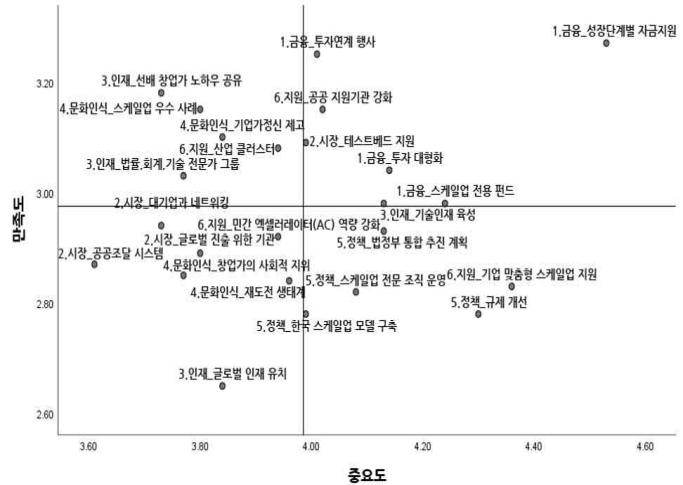
창업자가 인식하는 국가수준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현재 수준)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자가 인식하는 중요도 평균은 3.99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4.53),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4.36), ‘규제 개선’(4.30), ‘스케일업 전용 펀드’(4.24), ‘투자 대형화’(4.1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가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자본, 기업 맞춤형 지원,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족도(현재 수준) 평균은 2.98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3.27), ‘투자연계 행사’(3.25),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3.18), ‘공공 지원기관 강화’(3.15), ‘스케일업 우수 사례’(3.15) 순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 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표 7>과 같이 모든 요소의 중요도가 만족도(현재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들이 스케일업과 관련된 창업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현재 수준)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에서 순위가 높은 요소일수록 우선순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순서는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t=13.628, p<.001$), ‘규제 개선’($t=12.708, p<.001$), ‘스케일업 전용 펀드’($t=12.020, p<.001$),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t=10.538, p<.001$), ‘성장단계별 자금지원’($t=11.75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IPA 분석

상위 요소	하위요소	중요도 (A)	만족도 (B)	A-B 차이	t	우선 개선 순위
금융	스케일업 전용 펀드	4.24(4)	2.98(11)	1.259	12.020	3
	투자 대형화	4.14(5)	3.04(9)	1.101	9.690	11
	투자연계 행사	4.01(10)	3.25(2)	0.759	6.919	19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4.53(1)	3.27(1)	1.253	11.756	5
시장	테스트베드 지원	3.99(12)	3.09(7)	0.892	8.237	15
	공공조달 시스템	3.61(24)	2.87(17)	0.747	6.618	20
	대기업과 네트워킹	3.73(22)	2.94(13)	0.785	7.404	18
	글로벌 진출 위한 기관	3.80(18)	2.89(16)	0.905	8.348	14
인재	글로벌 인재 유치	3.84(17)	2.65(24)	1.184	10.804	8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그룹	3.77(20)	3.03(10)	0.741	6.663	21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	3.73(22)	3.18(3)	0.551	4.752	24
	기술인재 육성	4.13(6)	2.98(11)	1.152	10.298	9
문화인식	스케일업 우수 사례	3.80(18)	3.15(4)	0.652	7.263	23
	기업가정신 제고	3.84(16)	3.10(6)	0.741	7.651	21
	제도전 생태계	3.96(13)	2.84(19)	1.127	9.411	10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3.77(20)	2.85(18)	0.924	8.305	13
정책	법정부 통합 추진 계획	4.13(7)	2.93(14)	1.196	11.008	7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	3.99(11)	2.78(22)	1.209	10.324	6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4.08(8)	2.82(21)	1.259	10.538	3
	규제 개선	4.30(3)	2.78(23)	1.525	12.708	2
지원	산업 클러스터	3.94(15)	3.08(8)	0.854	8.517	17
	공공 지원기관 강화	4.02(9)	3.15(4)	0.873	7.845	16
	민간 AC 역량 강화	3.94(14)	2.92(15)	1.019	9.409	12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4.36(2)	2.83(20)	1.532	13.628	1

* 순위: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의 크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함



<그림 1> IPA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결과(n=158)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속성으로,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 ‘스케일업 우수사례’, ‘기업가정신 제고’, ‘산업클러스터’, ‘법률·회계·기술·전문가 그룹’ 요소가 있다. 해당 요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과잉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 및 만족도 값이 낮은 요소로 ‘대기업과 네트워킹’, ‘민간 AC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위한 기관’, ‘공공조달 시스템’,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제도전 생태계’, ‘글로벌 인재 유치’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이상의 노력이 불필요하여 점진 개선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요소로는 ‘법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제4사분면의 요소들은 창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족이 낮게 평가된 부분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집중개선 영역이다.

4.2.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 도출을 위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 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 평균값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창업자가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IPA 분석 결과는 중요도 및 만족도 모두 높은 제 1사분면에는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투자연계 행사’, ‘공공 지원기관 강화’,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 대형화’, ‘스케일업 전용 펀드’, ‘기술인재 육성’ 요소가 있다. 이는 창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관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인식하는 국가수준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분석하고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정책의 시사점과 요소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이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7년 이내 스타트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진단하여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트업은 축적의 시간을 거쳐 스케일업으로 진화하므로(강준영, 2017), 스케일업 단계를 준비해나가는 스타트업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특징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에 가장 많았고, 직원 수는 5명 이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았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특징은 네트워킹을 통해 외부 환경의 요소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요소의 중요도의 상위 6가지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지원’(4.53),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4.36), ‘규제 개선’(4.30), ‘스케일업 전문 펀드’(4.24), ‘투자 대형화’(4.14), ‘기술인재 육성’(4.13)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금융 3가지, 정책 1가지, 지원 1가지, 인재 1가지의 요소이다.

만족도(현재수준)의 상위 6가지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지원’(3.27), ‘투자 연계 행사’(3.25),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3.18), ‘공공 지원기관 강화’(3.15), ‘스케일업 우수 사례’(3.15), ‘기업가정신 제고’(3.10)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금융 2가지, 인재 1가지, 지원 1가지, 문화인식 2가지의 요소이다.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를 분석한 결과, ‘범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 요소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4가지, 지원 1가지 요소로 향후 스케일업 관련 정책과 지원으로 창업생태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양적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과 관련된 요소 모두 제1사분면에 위치하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스케일업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수준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유지해나가며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제2번처 붐을 통해 벤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법 제정 등의 노력해온 결과로 보인다. 조윤정(2020)은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위해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의 Pool을 구축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매칭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자본조달은 해외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와 1억 달러 이상을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메가 투자로 투자 대형화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으로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스케일업 등 전 단계에서 M&A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하고 대기업 주도 CVC(기업 벤처캐피탈), CAC(기업 액셀러레이터)의 형태 등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김영환·김지은,

2022).

둘째, 시장과 관련된 요소 중에는 테스트베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공공조달 시스템, 대기업과의 네트워킹은 중요성과 만족도가 둘 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아이템 검증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재와 관련된 요소 중에 기술인재 육성은 계속 유지해나가는 부분으로,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와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그룹은 과잉 실행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보다 국내 기술인재 육성에 더 비중을 두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인식과 관련된 요소 중에 스케일업 우수사례와 기업가정신 제고는 중요도는 낮게,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와 제도권 생태계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가 스케일업 생태계 요소로 문화인식을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김영환(2021)은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김수진 외(2022)에서도 창업 실패 시 사회 안전망과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는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책과 관련된 요소는 모두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창업자들을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으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과 범정부 통합 추진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과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개선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수준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통합 정책의 추진과 생태계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김영환·김지은(2022)은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으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의 노력이 필요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초기 기업에게 몰려 있어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지원과 관련된 요소는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이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은 개별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스케일업 정책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다수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의 개별 투자, 민간과의 공동 투자 유치, 성장 역량 강화, 투자와 융자의 복합 지원,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김영환·김지은, 2022)

국내 창업생태계는 금융, 시장, 인재, 문화인식, 정책, 지원의 구성요소들을 구축하며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다. 국가수준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시장에서의 검증이 기존처럼 유지되며,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지원, 전문조직 운영, 규제 개선, 범정부 통합 추진계획 등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

요함을 IPA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위해, 지역별 균형 발전과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5.3.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senberg(2017), 조달호·유인혜(2019), 홍대웅·전병훈(2019), 김선우·진우석(2020)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문항으로 사용하여 국내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요소로, 지역이나 사업분야별 등 세부적인 창업정책에 대한 고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IPA 분석은 절대적 중요도를 활용한 방법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윤설민, 2018). 셋째, 더 많은 표본으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지역별, 사업 분야별로 비교한다면 지역 생태계와 산업별 생태계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하거나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사례 연구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환경적 요소와 성공 핵심 요인 도출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요소들 간의 영향을 연구한다면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강준영(2017). *일자리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 강준영·김혜진(2019). 벤처생태계의 스케일업(scale-up)과 패러다임 변화. *산은조사월보* 768, 3-36.
- 강희일·김현중·문형돈(2017). ICT 스케일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탐색적 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36-937.
- 강희일·김현중(2019). ICT 스케일업 기업과 비스케일업 기업 간의 특성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30-731.
- 고대경·박재은(2019). *국내 바이오 벤처 스케일업 전략*. NRDO, Weekly KDB Report.
- 관계부처 합동(2022. 9. 8.).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보도자료*. Retrieved (2022.09.10.) from <https://test.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5913&parentSeq=1035913>.
- 김만수·강재원(2021). 정책 패러다임 관점에서 살펴본 창업정책 변화. *벤처창업연구*, 16(3), 43-58.
- 김선민(2019). 창업생태계의 이해관계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9(3), 757-767.
- 김선우·김영환·이정우·모미령(2018). *스케일업을 통한 지역 중소도시 혁신 방안*.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선우·진우석(202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선우·진우석·곽기현·고혁진(2021a). 창업·벤처 생태계 측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6), 31-42.
- 김선우·홍정임·김승현·오승환(2021b).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의 시사점*.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성태·홍재범(2015). 고성장기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3(3), 373-396.
- 김수진·서경관·남정민(2022). IPA 분석을 통한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도출. *벤처창업연구*, 17(4), 101-114.
- 김애선·주강진·윤예지·김예지·황동규·최경주(2019).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서울: KCERN.
- 김영범·양동우(2021). 액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 149-175.
- 김영환(202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967-2990.
- 김영환·김지은(2022). *2021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정호·백서인(2021). 유니콘 기업의 성장 과정과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라이프와 스케이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6(3), 45-80.
- 김충현·이재강(2020). 지역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Scale-up) 을 위한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Triple Helix 모형을 중심으로. *경영권선택연구*, 20(2), 11-22.
- 김현창(2019). 고성장기업의 기술혁신활동 특성에 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2(1), 28-49.
- 남정민·이성호·이소정·유현경(2021).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16 년과 2021년 변화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145-155.
- 남정민·이현우(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비교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22(3), 51-63.
-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국토* 456, 6-10.
- 배용호·김석현·정현주(2016). *2016 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 궤적*.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백서인·손은정·김지은(2020). 4 차 산업혁명 분야 중국 혁신 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센스타임, 마이트멘스, DJI 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7(1), 75-100.
- 변충규·성창수(2014). 예비창업자의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9(5), 99-116.
- 서리빈·최정철·변영조(2020). 「중소기업연구」 40 년 동안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 고찰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42(4), 69-102.
- 손가영(2019).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인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설민(2018). 전통적 IPA 와 수정된 IPA 적용에 의한 서울의 고공 체험요소 비교. *지역산업연구*, 41(1), 71-90.
- 이민재·정진섭(2021). 충북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삼중나선모형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5(3), 87-115.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 Retrieved (2022.09.10.) from <https://iitp.kr/kr/1/knowledge/periodicalViewD.it>.
- 조달호·유인혜(2019).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조병문·신현환(2020). 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창업, 성장, 회수 등 단계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97-110.
- 조윤정(2020).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산은조사월보* 777, 24-52.
- 중소벤처기업부(2017). *고성장 기업,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역량 월등*. Retrieved(2022.09.10.) from <https://www.m>

- 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1998&parentSeq=1001998
- 홍대웅·전병훈(2019).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 (Scale-up)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6), 11-27.
- 황정섭·심다현·이정우(2021). ICT 스타트업 스케일업 성공요인 연구: ERIS 모델 적용 사례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4), 89-101.
- Audretsch, D. B., & Belitski, M.(2017).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citi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condition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5), 1030-1051.
- Bae, Y. H., Kim, S. H., & Jung, H. J.(2016). *2016 High Growth Companies and Their Growth Trajectories*.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Baek, S. I., Son, E. J., & Kim, J. E.(2020). Analysis of Success Factor of Chinese Innovative Start-ups: Sensetime, Byte Dance, DJI case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7(1), 75-100.
- Byun, C. G., & Sung, C. S.(2014). A Study on IPA Analysis of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The focus of Youth Start-up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5), 99-116.
- Cantner, U., Cunningham, J. A., Lehmann, E. E., & Menter, M.(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dynamic lifecycle model. *Small Business Economics*, 57(1), 407-423.
- Cao, Z., & Shi, X.(2020).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57(1), 75-110.
- Cavallo, A., Ghezzi, A., & Balocco, R.(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es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4), 1291-1321.
- Cho, D. H., & Yu, I. H.(2019). *Scale-up Policy for Seoul*. Seoul: The Seoul Institute.
- Cho, Y. J.(2020).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cale-Up for the Development of Unicorn Enterprises. *KDB monthly bulletin*, 777, 24-52.
-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 Coutu, S.(2014). *The Scaleup Report on UK Economic Growth*. Sherry Coutu CBE.
- Feld, B.(2012). *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mmitt, W. E., Bixler, R. D., & Noe, F. P.(1996). Going beyo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analyze the observance-influence of park impact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4(1), 45-62.
- Hong, D. U., & Jun, B. H.(2019). A Study on the Domestic Scale-up Policy Di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cale-up Support Policy for Global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11-27.
- Hwang, J. S., Sim, D. H., & Lee, J. W.(2021). A Study on Scale-Up Success Factors for ICT Startups: A Case Analysis Using ERIS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89-101.
- Involved ministries(2022. 9.8). *K-Startup Global Strateg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trieved (2022.09.10.) from <https://test.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5913&parentSeq=1035913>.
-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2018). *Scale-up Support Policy in Major Countries*. Retrieved (2022.09.10.) from <https://iitp.kr/kr/1/knowledge/periodicalViewD.it>.
- Isenberg, D. J.(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40-50.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781), 1-13.
- Isenberg, D.(2017). *Driving economic growth through scale up ecosystems*. *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Johannesburg, South Africa*. Retrieved(2022.09.10.) from <https://www.slideshare.net/DanIsenberg/driving-economic-growth-through-entrepreneurship-ecosystems-73307042>
- Joe, B. M., & Shin, H. H.(2020). Analysis and Proposal of Startup Policy: Focusing on step-by-step Implications such as Startup, Growth, and Recover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97-110.
- Kang, H. I., & Kim, H. J.(2019). A Characteristics Analysis between ICT Scaleup and non-Scaleup Company. *Proceedings of Symposium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730-731.
- Kang, J. Y.(2017). *Scale-up of Start-ups for Job Creation and Implications*. Weekly KDB Report.
- Kang, H. I., Kim, H. J., & Moon, H. D.(2017). A Study on Effect of Employment of ICT Scale-up Company. *The Journal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936-937.
- Kang, J. Y., & Kim, H. J.(2019). Scale-up and Paradigm Change of Venture Ecosystem. *KDB monthly bulletin*, 768, 3-36
- Kansheba, J. M. P., & Wald, A. E.(2020).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7(6), 943-964.
- Kim, A. S., Ju, K. J., Yoon, Y. J., Kim, Y. J., Hwang, D. G., & Choi, K. J.(2019). *Scale-up and Unicorn Strategy*. Seoul: Korea Creative Economy Research Network,
- Kim, C. H., & Lee, J. K.(2020). The Key Success Factors for Scale-Up in the LocalSMEs: Focused on the Triple Helix Model.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0(2), 11-22.
- Kim, H. C.(2019).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of High Growth Firm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2(1), 28-49.
- Kim, J. H., & Baek, S. I.(2021). A Study on Growth Process

- and Growth Factors of Unicorns: Focusing on the Cases of Stripe and Square. *Korea Society of Innovation*, 16(3), 45-80.
- Kim, M. S., & Kang, J. W.(2021). Entrepreneurship Policy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aradig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3), 43-58.
- Kim, S. J., Seo, K. R., & Nam, J. M.(2022). Improvement Plan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4), 101-114.
- Kim, S. M.(2019). A Stakeholder Analysi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3), 757-767.
- Kim, S. T., & Hong, J. B.(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High-growth Firms: Focusing on Technology Appraisal Indicator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3(3), 373-396.
- Kim, S. W., & Jin, W. S.(2020). *A Scale-Up Plan for Venture Businesses*.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S. W., Hong, J. I., Kim, S. H., & Oh, S. H.(2021b). *British Scale-Up Monitoring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S. W., Jin, W. S., Kwak, G. H., & Ko, H. J.(2021a).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31-42.
- Kim, S. W., Kim, Y. H., Lee, J. W., & MO, M. R.(2018).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novation through Scale-Up*.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Y. B.,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ccelerating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cale-up of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 149-175.
- Kim, Y. H.(2021). Development of Korea's Start-up Ecosystem through Benchmarking of Foreign Countri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67-2990.
- Kim, Y. H., & Kim, J. E.(2022). *2021 Korean Start-Up Ecosystem Dashboard*.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o, D. G., & Park, J. E.(2019). *Domestic Bio-venture Scale-Up Strategy: NRDO*, Weekly KDB Report.
- Lee, M. J., & Jung, J. S.(2021). Strategies for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in the Chungcheongbuk-do: Focused on the Triple Helix Model.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5(3), 87-115.
-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ason, C., & Brown, R.(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to OECD, Paris*, 30(1), 77-102.
- Meshram, S. A., & Rawani, A. M.(2019).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eco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JSESD)*, 10(3), 103-11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7). *High-growth enterprises have superior job creation capabilities compared to general companies*. Retrieved(2022.09.1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1998&parentSeq=1001998>.
- Moon, M. S.(2019). Concepts and Spatial Implications of Startup Ecosystem. *Planning and Policy*, 456, 6-10.
- Nam, J. M., Lee, S. H., Lee, S. J., & You, H. K.(2021).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Perception Focusing on the changes in 2016 and 2021.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145-155.
- Nam, J. M., & Lee, H. S.(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the Attitude of Entrepreneurs by Asian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Japan, Korea, and Singapore.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22(3), 51-63.
- Petersen, D. R., & Ahmad, N.(2007). *High-growth enterprises and gazelles: Preliminary and summary sensitivity analysis*. Paris, FR: OECD-FORA, 16.
- Ries, E.(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New York: Crown Business.
- Seo, R. B., Choi, K. C., & Byun, Y. J.(2020). Exploring A Research Trend o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40 Years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for the Development of Ecosystem Measurement Framework.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2(4), 69-102.
- Son, K. Y.(2019). *Policy and Implications for Scale-Up Support in Major Countries*. Jinche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Spigel, B.(2017).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49-72.
- Spigel, B.(2022). Examining the cohesiveness and nestedness entrepreneurial ecosystems: evidence from British FinTechs. *Small Business Economics*, 1-19.
- Stam, E.(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Stam, E., & Van de Ven, A.(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2), 809-832.
- Stangler, D., & Bell-Masterson, J.(2015). *Measur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Kansas City, MO: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Startup Genome(2022).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2*. San Francisco, CA: Start-up Genome.
- Theodoraki, C., & Messeghem, K.(2017). Explor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field of entrepreneurial support: a multi-leve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31(1), 47-66.
- Van de Ven, H.(1993). The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11-230.

Wadichar, R. K., Manusmare, P., & Burghate, M. A.(2022). Entrepreneurial Ecosyste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Vision*, 09722629221093866.

Yoon, S. M.(2018). A comparison for experience factor toward ancient palace of Seoul applied to the traditional IPA and revised IPA. *Regional industry review*, 41(1), 71-90.

IPA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Startups

Hey-Mi, Yun*
Jung-Min, N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startup founders within 7 years of found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and analyze the direction of scale-up policy by component using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ince the perception of founders, who are the subjec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ffect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art-ups,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and diagnose the perception of scale-up compon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companies that emerge from startups to scale-up and unicorns must be produced, and for this, elements for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are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ranking of the components of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recognized by founders was in the order of "Financial support by growth stage," "Support for customized scale-up for enterprises," "Improvement of regulations," "Funds dedicated to scale-up," "large-scale investment," and "nurturing technical talents." Second, the factors that should be intensively improved in the importance-satisfaction matrix in the future were 'Pan-Government Integration Promotion Plan', 'Scale-Up Specialized Organization Operation', 'Company Customized Scale-Up Support', 'Regulatory Improvement', and 'Building a Korean Scale-Up Model'. As a result, various and large financial capital for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diversification of scale-up programs by business sector, linkage of start-ups and scale-up support, deregul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strengthening corporate-tailored scale-up growth capabilities, and providing overseas networking opportunities can be deriv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practice and academic work with research that derives the components of the domestic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diagnoses its perception.

KeyWords: Startup,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Finance, Market, Human Capital, Culture, Policy, Support, IPA

*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hamhelena@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